

“다시 뛰는 군산 만들겠다”

익산시의회 전반기 의장단 선출

의장-최종오 의원 · 부의장-한동연 의원

익산시의회는 지난 1일 오전 제24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년 동안 시의회를 이끌어 갈 제9대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의장으로 최종오 의원(모현동, 송학동)이, 부의장에는 한동연 의원(어양동)이 각각 선출됐다.



최종오 의장



한동연 부의장

한동연 부의장은 3선 의원(제7, 8, 9대)으로서 제7대 후반기 보건복지위원장과 제8대 3기 예산결산위원장을 역임했고, 평소 부드러운 카리스마로 의정활동을 펼쳐오는 등 많은 주민들의 호평을 받아왔다.

오후 2시에는 개원식을 갖고 25명의 의원은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하는 의원선서를 했다. 최종오 의장은 개원사를 통해 “제9대 익산시의회는 △화합하는 상생의회, △시민중심 열린의회, △신뢰받는 바른의회가 되겠다”고 의정운영방향을 밝혔고,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살기 좋고 희망 가득한 익산시를 만들기 위해 의원 모두는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힘찬 출발을 알렸다.

오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위원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및 의회운영위원회 선거를 실시한 후,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교육하기 좋은 도시 · 청년 창업수도 군산! 비전 제시

강임준 군산시장이 지난 1일 시청 대강당에서 민선 8기 군산시장 취임식을 갖고 시청 운영 청사진을 내놓았다.



민선 8기 군산시장 취임식

이날 취임식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경제 상황을 고려해 문화공연 등 형식적인 의식행사는 최소화하고 취임선서와 취임사를 중심으로 민선 8기 미래비전을 시민과 공유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강임준 시장은 취임사를 발표하면서, 4년 전 전국 최초로 고을위aggi지역, 산업위aggi특성지역 지정과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삼중고의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게 된 것은 27만 군산시

민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어 민선 8기는 지난 4년간 다져놓은 군산 발전의 기반을 한 단계 더 고도화시키고 이제는 경제뿐만 아니라, 교육 · 문화 · 관광 · 안전 · 복지 등 모든 면에서 시민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가장 먼저 ‘살기 좋고, 살고 싶은 도

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이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민선 8기 시장의 최우선 가치를 ‘영유아부터 초 · 중 · 고 교육까지 책임지는 교육도시’에 두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군산형 공공영양 시중 ‘공공학습관’ 공부의 명수를 개발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제고하고, 청소년 자기계발연수비, 초등학생 문화페이 지원 등을 통해 자기계발 및 진로체험 기회의 폭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또한 어린이 체험 인프라 확장을 위해 어린이상상도서관과 어린이농업센터를 새롭게 조성하고, 청소년 시니어스 무상교통도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민선 8기 정현을 호 ‘시민이 열어가 는 시대’ 선언

예술의전당서 취임식 개최



민선 8기 군산시장 취임식

정현을 익산시장이 시민이 열어가 는 시대를 선언하며 민선 8기 본격 출범을 알렸다.

정 시장은 지난 1일 예술의전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시민과 함께 익산의 미래를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었다.

이날 취임식은 정현을 시장과 공무원 시민 등 1천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현장에서 시민과의 만남을 시작으로 시립풍물단의 식전공연, 민선 8기 비전이 담긴 동영상 시청, 취임 선서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다양한 축하 메시지와 퍼포먼스 등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화합의 장이 펼쳐졌다. 특히 취임 축하 퍼포먼스는 정지권 다문화가정, 청년 노동자 등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시민 11

명이 참여해 익산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며 대통합의 시대를 열어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익산 최초 3선 시장을 만들어주시 시민들의 소명을 받들어 무거운 사명감을 안고 익산의 대도약을 완성하겠다”며 앞으로 추진해 나갈 4대 비전을 발표했다.

민선 8기 시장 방향은 △유리시대로 뻗어가는 국제철도 도시, △숲과 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정원도시, △시민이 행복한 품격 높은 역사문화도시,

△미래를 선도하는 바이오산업도시 등이다.

정 시장은 민생경제 회복을 최우선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하며 4대 시장 방침을 토대로 각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 시민들의 확실한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 시장은 취임식 당일 오전 간부 공무원과 함께 팔봉 군경모자를 참배했으며 이후 남부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둘러보며 시민들과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정현을 시장은 “시민 여러분과 함께 민선 8기 익산의 미래를 완성하기 위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시민들의 삶의 변화를 이끌어내고 모두가 행복한 품격 있는 익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깨끗한 물 공급 위해 수질관리 강화

군산시는 무더운 여름철을 대비해 시민이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상수도 수질관리를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15일까지 대형건축물 등의 저수조 위생상태 조치 등 관리상태를 집중점검하고 아직까지 점검을 받지 않은 대형건축물 171개소에 대해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를 독려할 계획이다.

대상시설물은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이나 시설, 연면적 3천㎡ 이상인 업무시설, 2천㎡ 이상인 학원 및 예식장과 관공서 1천석 이상의 공연장 및 실내체육시설, 건축법에 따른 아파트 등이 해당된다.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도법에 의거 연2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해야 하고, 월1회 이상 위생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또한 연회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미실시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에 따라, 시는 ‘군산시 상수도 급수조제’에 따라 대형건축물 등의 수질검사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반

기에는 대상시설 316개소 중 145개소의 저수조 점검과 수질검사를 실시했다.

또한 시는 대형건축물 저수조 점검 외에도 수돗물 표본수(45개소), 급수 파이프(16개소), 마을 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10개소)의 수질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및 국가 상수도 종합시스템에 공표하고 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수돗물 수질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무료로 수질검사를 해주는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수돗물을 사용하는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물사랑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종혁 수도사업소장은 “저수조는 수돗물을 보관하는 용기인 만큼 정기적인 청소와 위생상태 점검을 반드시 완료해주시기를 바란다”며, “무더운 여름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질검사를 신속·정확하게 실시하고 오염원 제거 및 시설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여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확대

익산시가 부모들의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

시는 7월부터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전국 최초로 결혼이민자 가정에 양육 공백 여부와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또한 한국어가 서툰 결혼이민자들의 출산과 양육을 돕고 육아 정보를 알려주어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맞벌이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지원하던 아이돌봄서비스는 본인부담금을 첫째아는 기존 50%에서 70%로, 둘째아 이상은 70%에서 지역 지원으로 확대된다.

단, 본인부담금 지원은 시간제는 연 840시간 이내, 종일제는 월 60~200시간 이내만 적용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군산시, 농민 공익수당 지급 공익적 가치 증진

군산시는 ‘전북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 (약칭, 농민 공익수당)의 신청·접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1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요건충족 여부 확인 절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4월 28일까지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 결과, 8,438명이 신청했으며, 오는 24일부터 8월 4일 기간 중 지급제의 대상자의 신청 기간 운영 후 적합대상자를 선정, 오는 9월 추석 전에 농민 공익수당 카드(선불카드)를 지급할 예정이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 대상은 2년 이상(2019. 12. 31. 부터 지속) 전라북도 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영농규모가 1,000㎡ 이상이어야 한다.

양현민 농업축산과장은 “9월 추석 전 농민 공익수당 카드(선불카드) 지급하여 농업인뿐만 아니라 참치되어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김판근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